

기고

### 마약, 출구없는 미로입니다

고효범 강진경찰서 수사과 수사팀 순경



마약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성분 중 하나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그만큼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체중감소, 심각한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약의 부작용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마약 사용은 대부분 기분 변화와 흥분 상태를 일으키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마약 사용 후에는 우울증, 불안, 강박증, 약용, 파괴적인 충동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또한 체중 감소, 건강 문제, 호흡 장애, 근육 약화, 심장 및 뇌 손상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출구가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한 번 마약에 빠지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가족을 떠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마약 중독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약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심리 상담, 신체적 지원,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 사용을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마약은 건강과 삶을 파괴할 뿐이며, 마약 중독자는 출구가 없는 미로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약은 출구없는 미로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칼럼

###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5월 15일은 제42회 스승의 날이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지식 정보를 먼저 터득하여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스승이고 배우는 위치에 있으면 제자다. 우리는 나를 가르친 스승이 있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이면서 부모가 되듯이 제자이면서 스승이고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다.

스승의 날은 스승으로서 반성하는 날이고 제자로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 직접 간접으로 스승과 제자가 만남의 날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르침을 받는 곳은 가정과 학교며 가르쳐주는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다. 학교는 입학으로 만남이 시작되고, 졸업으로 만남이 끝나는 헤어짐이지만,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성공하여 다시 만남의 약속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 정보도 가르쳐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스승은 제자들을 졸업으로 내보내며 좀 더 사랑하고 잘 가르쳐 주지 못함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좀 더 잘 따라 잘 배울 것을 후회한다. 졸업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담임교사의 말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고 졸업 후 오랜 세월 41년이 지났지만 성공한 제자가 스승을 잊지 않고 찾아와 스승 사랑 선물을 주고 간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의 실화가 있다.

임 만금(전, 담양동 교장, 광주교대 11회)은 2014년 2월 말 정년퇴임 했다. 2013년 1월 6일 방학 중 학교 근무를 하는 교장실을 노크하고 들어온 젊은 신사 한 분이 있었다. "임 만금 선생님! 저 이 성화가 성공해서 41년 만에 찾아와 인사드립니다."하고 큰절을 하는 젊은이는 41년 전, 임 교장이 초 임지 영광 백수 북 초등학교에서 6학년 때 담임한 제자였다.

"자네가 성공했다니 정말 반갑네, 그동안 이야기를 듣고 싶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고학하여 공부했고 전자공학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벤처기업을 시작했으며 지인의 도움으로 태국에 가서 기업이 번창하게 잘되어 많은 돈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쪼

이고 안 될 때마다 선생님께서 졸업식 때 아버지 앞에서 '성화는 성공하여 큰사람 될 것입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되새기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도 교육청에서 알아보니 담양동 초등학교에 계시고 2월 말에 퇴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두 개의 봉투를 내놓았는데 하나는 그려서 승용차 인수증이 든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천만 원이 든 돈 봉투였다. 과분한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성화 제자는 자기는 부자라고 하면서 작은 선물이니 받아 주시라고 하며 학교를 떠났다 한다. 41년 만에 스승을 찾아온 것만도 고마운데 과분한 선물을 두고 간 제자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이 나왔고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한다.

연어는 냇물에서 부화하여 성장하면 바다로 가서 크게 자라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온다. 스승이 졸업식 때 제자의 가슴에 심은 긍정의 성공 씨앗이 성공하여 41년 만에 다시 스승을 찾아오는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은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졸업생을 내보내는 스승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교직을 선호하는 것은 제자를 잘 가르쳐서 지식을 전수하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훌륭한 인재로 배출되어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 교직자가 졸업시키는 때나 정년을 맞아 교문을 떠날 때,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제자에게 못다 한 가르침의 아쉬움과 사랑함을 충분히 주지 못한 자기반성으로 석별의 정이 서러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졸업하여 교문을 떠나는 제자의 마음속에 스승을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성공의 씨앗을 심어주는 스승이 되어야 하며, 졸업한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공하여 스승과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졸업식이 되어야 하며 성공 후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한다.

기고

### "경찰차가 앞에서 지그재그? 트래픽브레이크 알아봐요"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근 도로에서 운전 중인 차량들이 경찰차량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경찰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기법을 사용하여 추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적용되는 기법으로, 경찰차량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들도 일정한 속도로 감속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게 되며, 도로 위에 발생한 위험을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

해 경찰청은 "트래픽 브레이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적인 기법으로, 운전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목격했을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하며, 경찰차량과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생활정보전화

#### 긴급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